

직장 성희롱에 가정폭력까지...여전한 '여성 학대'

오늘 세계여성의 날...광주 여성 인권 실태 보니

광주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A(27)씨와 동료들은 지난해 직장상사 B씨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사를 고소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A씨의 직장상사가 수개월 동안 A씨를 포함한 회사 여직원 3명을 지칭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며 SNS상에 유포했기 때문이다. 직장 내부에서도 A씨 일행은 다른 동료들의 수근거림을 견뎌내야 했다. A씨 일행은 B씨가 게시하는 글이 점점 구체적이고 수위가 높아지자 신고했고 B씨는 결국 직장에서 해고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입사한 여성 C(20)씨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

C씨의 사업주는 "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예뻐해 주니 고마워하라"라는 말을 이어갔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 가스라이팅(피해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을 부인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학대)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느냐"는 사업주의 협박에 C씨는 겁을 먹었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나 친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C씨는 사업주가 성희롱을 거쳐 신체 접촉까지 해오자 광주여성노동자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여성노동자회·1366센터
괴롭힘 등 해마다 상담 건수 늘어
가정폭력 상담 등 지난해 6899건
정서·신체적 이어 경제적 학대도
여성 안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여성 인권 신장과 성인지 감수성 개선의 목소리가 각 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의 여성들은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이 115주년을 맞았음에도 광주·전남 내 여성 인권 관련 상담은 해마다 늘고 폭행에 시달리는 여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광주지역 상담 신청은 총 479건에 달했다. 한달에 40건 가량의 상담이 이어지는 꼴이다.

이중 성희롱 상담은 67건이었고, 남녀고용평등

(45건)과 직장갑질(29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상담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02건에 달하던 상담은 2021년 415건, 지난해 47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대기업보다 영세사업장이 많아 소규모 집단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광주여성노동자회의 설명이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지역 '1366'에서도 지난해 6899건에 달하는 상담이 진행됐다. 이 중 98%(6817건)가 여성피해자였다.

이들이 주로 토로하는 상담은 배우자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폭언과 가스라이팅, 폭행 등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경제적 고충, 배우자의 성(性)적 강요 등이 있었다.

직장을 떠나 가정에서조차 광주지역 여성은 안전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4774건(2020년) → 5125건(2021년) → 5672건(2022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기간 3171명이 가정폭

력으로 검거됐고 34명이 구속됐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A·B등급)'수도 363가구(2020년) → 448가구(2021년) → 416가구(2022년)로 꾸준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A등급(위험수준)과 B등급(우려수준) 등 2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입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B등급은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89%, 남성의 66.3%밖에 되지 않는 월 평균 임금, 38.4%라는 저조한 정규직 비율이 2023년 여성의 현주소다. 2012년 발생한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연극계의 2차 가해 등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여성 인권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해 사용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 성폭력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국회서 '징용 해법' 규탄

"국가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극"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일본기업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11년이 지난 올해 다시 힘을 합쳤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국내기업의 돈을 모아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 '제3차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두 할머니는 7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시국회를 찾아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을 진행

했다.

두 할머니는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2명으로 정부가 마련한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 했다.

시민단체와 함께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이번 해법안은 일본 정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의 국가 역할조차 방기한 참극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5·18 피해, 산재법 아닌 국가배상법 적용 다시 배상해야"

부상자회·공로자회 헌법소원 방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유공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배상해 달라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지난 1~7차 보상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다.

5·18 유공자들의 기존 보상은 산업재해법의 보상방식을 차용해 와 '5·18 보상법'을 적용해 국가배상법의 보상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보상 기준이 산업재해법에서 차용한 '호프만식 계산법'(피해자가 장래 일할 수 있을 연수 등을 고려해 총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터라 남녀간 불평등한 보상이 이뤄지고 보상 액수조차 적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5·18보상법 제16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5·18은 이미 국가폭력이라고 인정된 것으로 이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들은 이어 "그 결과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중유공자로 남았는데, 이 또한 법률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새벽 무인점포 돌며 1000여만원 훔친 40대 구속

새벽 시간대에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1000여만원 현금을 훔쳐간 A(40대)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40분부터 3시10분까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과 동구 충장로의 무인점포 3곳에서 동전교환기에 모인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중순부터 천안시와 부산시, 창원시, 대

전시 등의 무인점포를 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현금은 총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출소했으며,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식장 물고기 집단폐사 여수시 '원인은 저수온'

지난달부터 이어진 여수시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는 '저수온'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지난 3일 '양식어류 폐사 관련 재해 원인규명 협의회'를 열고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달 여수시 가막·여지만에 한 파가 몰아쳐 수온이 급강하한데다 거센 풍랑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물고기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수시 여지만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막만에는 지난 1월부터 저수온 특보가 내려졌으며 3개월 넘게 지속된 끝에 지난 6일 모두 해제됐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7일 현재 여수시로 접수된 저수온 피해는 돌산읍, 남면, 화정면, 월호동 등 64어가로,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어류 양식장 총 261어가 중 24.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사한 물고기도 345만여마리에 달해 총 92억 67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어가 중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단 2어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최대 시가의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어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수시 261어가 중 저수온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5어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시는 이와 관련 어가 지원 보상액을 1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td> <td>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td> <td>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td> </tr> <tr> <td></td> <td>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td> <td>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td> <td>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td> </tr> <tr> <td></td> <td>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able>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p>(보3천, 월수익 380만)</p>
광주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광산구 하남동 (사우나) 3층 ▶ 감정가 62억 → 최저가 35억																	
	광산구 수완동 (상가 1층)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광산구 수완동 (토지) ▶ 감정가 11억 → 최저가 11억																	
	북구 신안동 (6층 상가)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북구 오치동 (주택) ▶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5천																	
	남구 월산동 (주택)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7천700만																	
	장성군 북이면 (잡종지) 1,991평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p>010-2614-9801</p>		<p>010-6670-9800</p>																